# 본사 매출 10.8% 늘때 가맹점은 7.6% 감소

프랜차이즈 불균형 심화 3년 새 매출 격차 벌어져 커피·음료만 나란히 성장

최근 3년간 가맹본부 매출이 10.8% 늘 어났지만, 가맹점포 평균 매출은 오히려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

템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커피·음료, 치 가장 큰 업종은 피자였다. 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치 현황(2022~2024년)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8만7108개에서 지난해 9만 2885개로 6.6% 증가했다.

이 기간 가맹 본사 매출액은 43조1565 감소하는 시장 포화 현상이 뚜렷했다. 억원에서 47조7963억원으로 10.8% 증가 했으나, 가맹점의 매출액은 3억2723만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7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이 등 7개 업종의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3년 4189억원에서 1조1193억원으로 66.5% 증가했지만, 가맹점은 3억5381억원에서 3 억1163만원으로 11.9% 감소했다. 이 기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757개에서 1895개로 7.9% 증가해 점포당 매출액이

> 외식 업종 역시 54개 본사 매출이 29.7%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의 평균 매 출액은 16.4% 감소했고, 제과제빵의 경 우 8개 본사 매출이 5.0% 증가하는 사이 이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이었다.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8.7% 줄었다.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동시에 성장한 업종은 커피·음료가 유일했다.

1만1513개로 3년간 19.2% 늘어나며 가 로, 작년 기준 11억4680원을 기록했다. 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9447억원으로 33.4% 증가했고, 같은 기 간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도 2억2115만 원에서 2억5237만원으로 14.1% 늘었다. 업종을 막론하고 단일 브랜드로 가맹점 층 심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5331개 로, 이중 CU (1만8458개) 가 가장 많았다.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17개 본사의 가맹점 수는 9661개에서 곳은 테이스티코리아의 중식당 매란방으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외식, 치킨, 본사 매출액은 2조9563억원에서 3조 피자, 편의점 업종에서 가맹점 수는 증가 하는데 점포당 매출액은 감소하는 시장 포화의 전형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3년 간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 불균형이 한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美타임 '2025 최고의 발명품' 선정

#### 빠른 충전·긴 주행거리 호평 무공해·자율주행 기술 결합

트럭으로 미래형 친환경 자율주행 화 물 운송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전기트럭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2025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고 12일 밝혔다.

자율주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은 현대치가 미국의 상용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플러스 AI와 협업해 만든 자율주행 트럭이 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플랫폼에 플 러스AI의 레벨4 자율주행 소프트웨 어 '슈퍼 드라이브'가 결합했다.

지율주행 기능을 통해 운송 효율성 을 높일 수 있고 경로 데이터 등을 활 고 현대차는 기대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세계 최 인정받고 있다. 초의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 중대형 트

럭으로 350kW 고효율 모터와 180kW연 료전지 스택, 72kWh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했다.

박철연 현대차 글로벌상용&LCV 현대자동차가 엑시언트 수소전기 사업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장거리 화물 운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대차 와 플러스AI의 협업이 뜻깊은 성과로 현대차는 자율주행 엑시언트 수소 이어졌다"며 "현대차는 수소 상용차 분야에서 화물 운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수소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 럭은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연료 전지 중대형 트럭으로 350kW 고효율 모터와 180kW (90kW x 2기) 연료전 지 스택, 72kWh 고전압 배터리를 탑 재하는 등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2020년 출시 이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스위스, 독일 등 세계 주요 시장 용해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에 판매되며 누적 주행거리 1500만㎞ 를 달성하는 등 친환경성과 기술력을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경제일자리재단**, 청렴 실천 결의대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재단 2층 경일이방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조직문화, 신뢰받는 재단'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사진제공=광주경제일자리재단

## 신안 등 지자체 5곳, SK텔레콤 유심교체 대리점 없어

### 인근 4시간 이동 불편…서삼석 "대안 마련을"

SK텔레콤이 사상 초유의 해킹 사고로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안군 등의 가입자들은 지역 내 대리점 이 없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총 2696만 회선 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 방지 차원 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에 나서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1017만 건(전체의 37%)을 교체했다.

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 ·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에서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에 대 리점이 없어 유심교체를 위해 인근 지자 체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다.

제가 아니다.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KT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의 경우 3곳, LG U+의 경우 47곳의 기초 다"고 지적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단체에 대리점이 없다. 특히 강원 양양군 과 전남 신안군은 통신 3사 모두 대리점이 없어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6만 6000여명의 주민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 해야만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 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대 해 공평하고 신속하도록 제공해야 하나, 현실은 지역별 차별로 인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통신 3시는 해킹으 로부터 국민의 회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리점 부재는 비단 SK텔레콤만의 문 것은 물론,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유 심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

#### 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 상승 전국 휘발유 평균 1663원 기록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3주 연속 동반 상승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 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5~9일) 전 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는  $\ell$ 당 1663.2원, 1535.6원으로 전주 대비 각 각 1.9원, 2.6원 올랐다. 9월 셋째 주 (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가 ℓ당 각각 1659.4원, 1530원을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최저가 지역인 울 산의 휘발유 판매가는 전주 대비 2.0원 상 승한 ℓ당 1633.1원, 전국 최고가 지역인 제주의 휘발유 판매가는 전주보다 10.0원 오른 ℓ당 1725.2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2.2원 오 른 ℓ당 1648.6원, 전남 휘발유 가격은 2 원 오른 ℓ당 1668원으로 나타났다.

경유도 역시 광주가 전주보다 0.6원 올 라 ℓ당 1523.9원, 전남은 2.4원 상승한 ℓ당 1541.1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제유가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 였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 는 배럴당 70.3달러(9월 셋째 주)에서 65.9달러(10월 둘째 주)로 하락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성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 약화, 예상보다 완만했던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의 증산은 하락폭을 제한했기 때 문이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4달 러 내려간 76.7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0.9 달러 낮아진 88.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 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유가를 고려하면 다음 주 국내 주유소 제품 가격 은 휘발유가 약세, 경유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 휘발유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은 광주 북구 장등 동 (유)착한휴게소(1589원)와 영암군 삼호읍 ㈜원 삼호현대주유소(1575원)이 며, 경유는 광주 광산구 황룡동 태평양주 유소(1474원)와 영암군 삼호읍 ㈜원 삼 호현대주유소(1455원)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